

전북제일신문

2023/11/06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시설채소 바이러스병 예방 만전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시설채소 재배의 바이러스병 예방을 위해 시설원에 종합예방 기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식물바이러스는 보통 진딧물, 가루이, 총채벌레 등의 매개충이 작물을 가해하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며 바이러스는 직접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매개충 방제는 가장 기본적인 방제 수단이다.

멜론·수박 등 박과류 시설재배 농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는 박과진딧물 매개황화바이러스,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등 5종이 있다. 이 중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는 가루이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다.

신동우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도 원예 농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찬우 기자

새만금일보

2023년 11월 06일 월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농기센터, 바이러스 예방

시설원에 종합예방기술 사업 활발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시설채소 재배의 바이러스병 예방을 위해 시설원에 종합예방기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식물바이러스는 보통 진딧물, 가루이, 총채벌레 등의 매개충이 작물을 가해하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며 바이러스는 직접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매개충 방제는 가장 기본적인 방제 수단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은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반점 또는 위조 증상이 생기고 밀도가 증가해 작물의 생육불량, 과실기형 등 상품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실제 옥산 박순녀 멜론 농가는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 모종 단계부터 방충망을 설치해 매개충 유입을 차단하고 색에 따른 불빛으로 유인해 해충을 잡는 광 방충기트랩 설치를 통한 매개충 예찰로 바이러스 발생 밀도 저하와 농약 살포 횟수도 줄어 “노동력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해 했다.

/순정일 기자